

책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로마인 이야기 총 15권 中 4-5권 율리우스 카이사르

어떤 이유로 이 책을 읽게 되었나요?

1. 생각의 흐름 : 명진님's 하루키 상실의 시대 - 와타나베의 여인들 - 와타나베는 카사노바인가.. - 희대의 카사노바는 역시 '율리우스 카이사르(시저)인데..'
2. 정환님's 결국 '인문학' - 사업도, 예술도, 문학도 역사 속에서 - 역사가 매력적인 순간에 시대는 한명의 인물을 탄생시키고 역사는 한동안 한 사람의 인생 안에서만 흐른다.
3. 학창시절,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불화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다가 기원전 예수의 탄생 전 역사를 알기위해 읽기 시작했던 로마인 이야기 시리즈.

다른 회원들에게 읽어주고 싶은 책에서 좋았던 구절을 적어주세요, 그 구절이 좋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나요?

1. 율리우스 카이사르Julius Caesar (시저) 그는 누구인가?

기원전 100년 7/12일 태생(July 7월의 기원)~기원전 44년 사망한 율리우스 시저, 로마와 유럽의 역사는 그의 전과 후로 나뉜다. 그가 집권하기 전 현재 이탈리아 영토 범위에 지나지 않았던 로마는 카이사르의 영토 확장으로 현재의 유럽 지도의 대부분 지역과 영국(당시 브리타니아), 북아프리카 그리고 이집트-터키(오리엔트) 지역까지 로마의 패권 하에 놓으며 그 이후 1500년 가까이 이어질 로마 제국의 서막을 열었다. 그는 비록 56세의 나이에 암살당했지만 그가 정벌해놓은 영토와 로마의 강력한 패권을 바탕으로 카이사르의 양자(여동생의 딸의 아들)였던 옥타비아누스는 기원전 27년, '아우구스투스(August 8월의 기원)'라는 존호를 받으며 로마 제국의 첫 황제가 됐다.

2. "알렉산드로스는 갓 서른도 안되어 세계의 지배자가 되었는데, 서른을 넘긴 내 꼴은 지금 뭐란 말인가?" 명문 귀족 가문이긴 했지만 집안 경제력이 뒤떨어진데다 원로원 의원을 지냈던 아버지가 15세에 돌아가신 이후로 로마 정치에 영향력이 없었던 카이사르는 10대에 당대 최고 권력이었던 '술라'에게 대들다가 외국을 떠도는 신세였고 30대가 되어서야 로마에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는데, 이는 정치적 영향력이 아닌 막대한 빚으로 인한 유명세였다. (방대한 독서-파피루스 필사책이 비쌌 /패션리더의 옷-하얀 천을 둘둘 감는 토가의 주름 모양을 결정 짓는 천의 두께를 얇게 하기 위해 막대한 빚을짐 / 애인들에게 아낌 없는 선물공세)

3. 고금의 역사가나 연구자들의 저술은 말한다. '그는 요약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궁금해했다. '카이사르는 왜 그토록 여자한테 인기가 많았으며, 게다가

가 그 여자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서도 원한을 사지 않았는가?’

카이사르의 다음 관심이 자신에게 향하기를 기다린 여인들은 모두 로마 상류층 여인들(남편이 있는)이었으나 그들은 서로 질투하거나 싸운 적 없이 자기 차례를 조용히 기다리기만 했다. 당대 원로원 의원의 3분의 1이 카이사르에게 아내를 '도둑맞았다'고 말하는 역사가도 있다. 카이사르의 애인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여자는 클레오파트라이고 그 다음으로 카이사르 암살의 주모자였던 브루투스 어머니 세빌리아. 그녀는 20년간 카이사르의 애인이었으며 카이사르의 애인으로 남기 위해 재혼을 마다했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 조각 미의 기준 그는 절대 미남형이 아니었다. 40대부터는 이마가 눈에 띄게 후퇴한 대머리였기 때문에 고심이 많았고 세계가 그를 중심으로 돌기 전까지 그는 항상 빛더미에 올라앉아 있었던 데다가 40세 이전에는 권력도 없었다. 하지만 그를 아는 모든 여자가 그를 사랑했고 그의 매력에 빠진 수많은 역사 학자들이 그에 대해 방대한 기록을 남겼다.

4. 고금의 역사가나 연구자들에게 아직도 수수께끼로 남아 있는 또 한가지 문제는 카이사르가 왜 그렇게 큰 빛을 지었는가보다, 어떻게 그렇게 막대한 빛을 질 수 있었는가 하는 점. 카이사르의 최대 채권자는 마르쿠스 크라수스였는데 자신이 카이사르에게 빌려준 돈도 많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진 부채의 지불 보증까지 서줬다. 후세 연구자들 중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남의 돈으로 혁명을 해냈다고.

“카이사르는 대대장이나 백인대장들한테 돈을 빌려 병사들에게 보너스로 주었다. 이것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왔다. 지휘관들은 돈을 못 받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라도 열심히 싸웠고, 총사령관의 선심에 감격한 병사들은 전심전력을 기울여 용감하게 싸웠다.” - 카이사르 [내전기] 중에서

베르톨트 브레히트는 카이사르와 돈의 관계를 [카이사르씨의 사업]이라는 소설 주인공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한다. “그가 돈 문제로 찾아온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볼 때마다 내 가슴은 경외감으로 가득 차곤 했다. 그것은 그가 돈에 대해 갖고 있던 절대적인 우월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돈에 굶주려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의 돈을 자기 돈으로 만들어버릴 생각도 없었다. 단지 남의 돈과 자기 돈을 구별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돕기 위해 태어났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나는 돈에 대한 그의 초연한 태도가 채권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기보다 그들한테까지 전염되는 것을 자주 목격하고 경탄을 금치 못했다. 그럴 때의 그 양반은 그 유명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태연자약, 바로 그 자체였다.”

책을 다 읽고 나서 감상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다음 다섯 가지다. 지성, 설득력, 지구력, 자제력, 지속적인 의지. 카이사르만이 이 모든 자질을 두루 갖추고 있었다. -이탈리아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로마가도, 포도밭, 빵.. 로마의 역사가 유럽의 역사.